

반도체에 발목 잡힌 광주 수출 자동차가 이끌었다

광주 5.7% 증가...자동차 수출액 지난해보다 2배 급증 전남 6개월 연속 '마이너스'...석유제품 약세에 17.9% ↓

광주·전남의 수출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전국적인 수출 둔화 속에서도 광주는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반면, 전남은 6개월간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하는 등 좀처럼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수출 1위 품목이었던 반도체가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도 자동차 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해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전남은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석유제품 등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3 3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수출은 50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수입은 49억 달러로 5.4% 늘었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억6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10억6000만 달러 흑자)에 비해 84.9%(9만 달러)가 급감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전남의 희비는 크게 엇갈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는 지난달 수출이 16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수입도 8억3000만 달러로 7.1% 늘었으나 무역수지는 8억 달러로 전년(7억7000만 달러) 대비 3.90%(3000달러) 늘었다.

특히 수출 증가율만 놓고 보면 광주는 대구(31.8%)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주는 반도체가 재고 누적과 공급 과잉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IT 부문 업황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수출 부진이 이어져 지난달 수출이 25.3%나 줄었다. 냉장고도 지난해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면서 높은 실적을 거뒀던 탓에 역기저효과로 8.0% 줄었다.

이처럼 주요 품목의 부진이 이어졌으나, 수출 상승을 이끌어 낸 것은 자동차였다. 신차 출시 효과에 따른 세계 판매 증가와 수출단가가 높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선전 등으로 광주의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3억5000만 달러에서 올해 7억1000만 달러로 100.6% 급증해 수출 효과 노릇을 톡톡히 했다.

광주의 상황과 달리 전남은 극심한 침체를 이어가고 있어 대비를 이룬다.

지난달 전남의 수출은 34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9%나 감소해 전국 수출 감소율(13.6%)을 웃돌았다. 수입은 40.7억 달러로 5.1% 늘어 무역수지는 6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선박(88.7% ↑)과 합금철(88.2% ↑), 농약 및 의약품(106.3% ↑)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증가했으나, 주력 산업이자 수출액 규모가 큰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 약세를 보여 실적 악화를 초래했다.

최근 유가 안정화에 따른 주요 제품의 가격 하락

과 주요 시장 판매 부진으로 석유관련 수출이 크게 줄었다는 게 무역협회 측의 분석이다.

일단 석유제품은 항공유 수출이 확대됐음에도 경유와 휘발유 등 수출이 줄면서 32.9% 감소했고, 석유화학제품도 공급과잉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으로 합성수지(22.6% ↓), 기타석유화학제품(24.4% ↓) 등이 감소했다.

한편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광주·전남 수출환경 전망'에 따르면 응답기업 131개사 중 37.4%가 올해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환경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업 비중이 1년 사이 4.9%포인트 증가했고, 지역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업종이라는 데 있어서는 지역경제계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T, 광주·전남 K푸드 수출 목표 135억...수출 확대 현장간담회

파프리카 스마트팜 시설 견학 수출 품목 육성·애로사항 공유



김춘진(왼쪽 세번째) aT 사장이 강진군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썬을 찾아 수출 확대와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7일 강진군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썬을 찾아 올해 농수산물 수출 목표액인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광주·전남권 K-푸드 수출기업 수출 확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성푸드영농조합법인과 나주배원예농협 등 광주·전남권 주요 수출업체들이 참석해 기업별 수출계획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또 올해 수출 확대를 위한 논의와 파프리카 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견학하며 미래농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최근 고물가 등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수출 여건이 어렵지만, 광주·전남권은 배·유자·전복 등 지역 특산물을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고 시장개척에 나서며 K-푸드 수출 확대에 해외 인지도 제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aT는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지혜를 모으고 정부와 함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T는 지난 2월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수도권 수출 확대 간담회'를 시작으로 충청권, 경남권에 이어 이날 광주·전남권 간

담회까지 김 사장이 직접 K-푸드 수출 최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인자위, 지역 우수인력양성 산실로 발돋움

출범 10주년...매년 3000명 이상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

출범 10주년을 맞은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우수인력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광주인자위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력양성 및 훈련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설립된 광주인자위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훈련사업을 시작, 매년 3000명 이상의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인자위의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광주지역의 산업별, 직종별 인력·훈련 수요를 파악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훈련사업이다.

올해 국비 25억원의 훈련비를 배정받아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호남직업전문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등 3개의 훈련기관을 광주지역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해 3000여명에게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훈련센터의 훈련생 90% 이상의 수요, 80% 이상의 취업을 목표로 지역 고용률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2021년부터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 신산업 훈련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에도 나섰다.

2015년 일학습병행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기업훈련지원 사업을 운영, 일학습병행 사업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능력 개발사업 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학습병행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340여개의 신규 참여기업 발굴, 570회의 사업 참여 컨설팅, 670여명의 학습근로자를 지원했다.

재직자들의 직무능력개발과 구직자들의 취·창업 및 이·전직 훈련 지원을 위해 지난해 총 4회의 특화훈련의 공모를 시행, 37개의 차별화된 특화훈련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는 고용부로부터 50억원의 훈련비를 배정받아 1500명의 훈련을 목표로 세웠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마트 '캠핑 페스티벌' 개최...캠핑용품·먹거리 최대 40% 할인

내일부터 26일까지

이마트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캠핑용품과 먹거리를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캠핑할때 먹기 좋은 미국산 소고기 전품목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윗등심살과 부채살, 토마호크 스테이크 등을 행사카드로 결제시 최대 40% 할인한다.

또 '한우 팩 스테이크'와 '어메이징 두끼 매콤달달 떡볶이', '어메이징 와규 소불고기 전골'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된 가격에 피코크 밀

피유 나베'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00원 할인 판매한다.

캠핑용품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에세이 작가인 '오리여인'과 콜라보한 신상 캠핑용품 '오리여인 캠핑테이블·체어'를 2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또 '롤맨 아웃도어 웨건' 5만원 할인 행사와 성수 유명 카페 '백야드빌더'와 콜라보한 '백야드빌더 침낭(브라운·카키)' 20%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에 따르면 아웃도어 시즌을 맞아 관련 상품 매출도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지난달 대비 캠핑·등산 등 아웃도어 용품 매출은 20% 증가했다. 특히 캠핑용품 매출은 143%, 그늘막 매출은 603%, 캠핑테이블 매출은 655% 신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71년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현농·현농프레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에 발전기금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회원사인 (주)현농(대표 김철홍)과 현농프레시(대표 이나미)가 지난 17일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전남 친환경농업 및 농축산생명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연구센터의 친환경농업자재 연구개발과 실증지원 분야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친환경연구센터 졸업 기업인 현농은 친환경농

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농업바이오 벤처기업이다.

현농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추고 있고 특히 등록 16건과 유기농업자재 13종, 식물영양제 10종의 제품라인을 갖추고 있다.

현농프레시는 전남의 배와 단감 등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김철홍 대표는 "전남의 친환경농업과 농생명 분야, 지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친환경연구센터와 상생 협력을 통해 친환경농업 발전과 농산물 수출확산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